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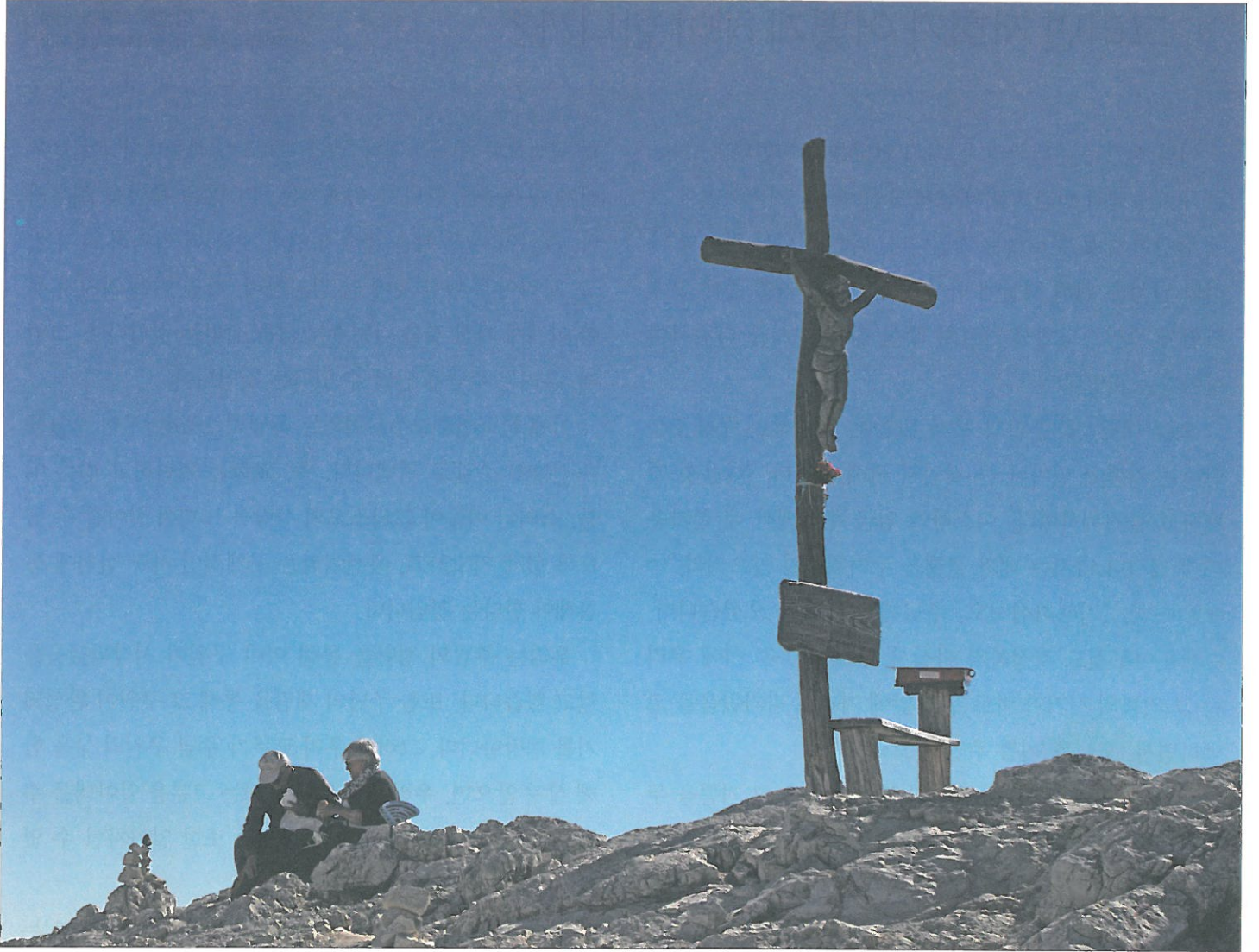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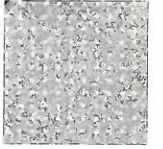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70호 2021년 12월 12일(다해)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필리 4,4,5 참조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1독서 | 스바 3,14-18ㄱ

화답송 | 이사 12,2-3.4ㄴ 다.5-6(◎ 6)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를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2독서 | 필리 4,4-7

복음환호송 |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 루카 3,10-18

영성체송 |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김성훈 스테파노 신부
사회사목국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림 시기는 주님과 의 두 가지 만남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구세주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심(성탄)을 기뻐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세상에 다시 오심(재탄)을 기쁨 중에 고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다시금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 제3주일의 독서 말씀은 고대하던 구세주를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전해 줍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네 한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네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스바 3,14-15),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렐리 4,4-6) 이에 우리는 그 기쁨의 시기가 바로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음을 고백하면서, 오늘을 ‘기쁨 주일’로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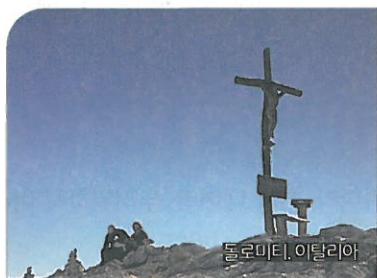
더불어, 오늘 대림 제3주일의 복음 말씀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례자 요한을 통해 전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려온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루카 3,10,12,14)라고 묻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3,11),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루카 3,13),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

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루카 3,14)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욕심을 채우거나, 자신이 가진 힘을 통해 타인의 것을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도리어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며, 가진 이는 가지지 못한 이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특별히 1984년부터 오늘을 ‘자선(慈善) 주일’로 지냅니다. 즉, 교회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자선이라는 구체적인 사랑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통해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통해 그 구원이 완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 구원의 삶을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유에 오시는 그분을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구세주 또한 알아차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곁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주교시노드(주교대의원회의)를 통해 제안하신, ‘함께 걷는 여정’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 길은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루카 3,11)

돌로미티 근처 작은 마을에서 만난 십자가였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듯 보이는 산꼭대기 십자가를 향해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올라갔습니다. 마침 노부부가 막 기도를 마치고 점심을 나누어 먹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가진 것을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작은 나눔 속에서 큰 사랑을 일깨워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참으로 든든한 삶입니다.

조효선 소화데레사 | 가톨릭사진가회





나눔+관심=사랑

서울 인보의집 '애들아! 밥먹자!'는 무료 식당입니다. 청소년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식사를 제공합니다. 주택이 밀집한 후암동의 골목 안이라서 찾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무척이나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주뻗주뻗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음식을 시키고 맛있게 먹는 모습들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제는 제법 단골손님도 생겼습니다. 단골손님 중에 이주민(미등록) 청소년이 있는데,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기에 피부색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한국인입니다. 5분 정도만 대화를 하다 보면 피부색도 잊을 만큼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주민(미등록)으로 살다 보니, 제한되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서울 인보의집에 오는 청소년만이라도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참사랑 도배 봉사 단체에서 습한 지하방에 방수 처리 후 도배와 장판을 해주셨고, 20년 동안 치워지지 못한 짐들은 용산구 의원님, 용산구청 청소과 주무관님, 나선(용역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식되어 부서지고 낡은 가구들은 버리고, 당근마켓에서 무료 나눔을 받아 장롱, 침대, 책상, 세탁기, 냉장고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옮기는 것은 이사 업체를 하시는 형제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관문은 부모의 불법체류가 풀려야 아이도 풀릴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미등록 기간 동안의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당장의 끼니도 어려운 형편에 과태료로 낼 큰 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후암동성당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교님께서 본당에 방문하시는데, 식사를 '애들아! 밥먹자!'



홍미라 루치아 수녀
인보성체수도회 서울 인보의집 원장

청소년 무료 식당에서 청소년들이 먹는 메뉴와 똑같은 것으로 준비해드릴 수 있겠느냐고요. 구요비 주교님께서 후암동성당 방문 후 '서울 인보의집'에서 점심을 드신 후, 차한 잔을 하시면서 청소년들에 관해 물으시기에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주교님께서 그 가정에 대한 것들을 글로 적어 메일로 보내 달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유경춘 주교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구요비 주교님께 보낸 글을 함께 공유하였고, 주교님들과 신부님들께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조금씩 저금해 모은 것 중 일부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후암동 주임신부님과 관할 본당인 해방촌 주임신부님께서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처럼, 주교님들과 신부님들과 평신도님들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 아닌 이웃이 되어, 따스한 겨울과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눔이끄는
성경구절



김어진 스테파니아 | 역촌동성당

음악으로 전하는 예수님 탄생 예고 성탄 캐럴 <가브리엘의 알림(Gabriel's Message)>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심의위원

서울주보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많은
<음악칼럼>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 1장 26절부터 38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과 이를 받아들이는 수줍은 처녀 마리아입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집안에 대림초를 놓으면서 시작된 성탄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을 정서적으로 높여주는 것이 크리스마스 캐럴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썰매 타고 오는 산타 할아버지, 트리를 장식하자는 신나는 음악, 아니면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는 달콤한 음악들이 아닌지요.

하지만 유럽의 오래된 캐럴에는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가진 성스럽고 경건한 음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캐럴, <가브리엘의 알림(Gabriel's Message)> 또는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왔네(The angel Gabriel from heaven came)>라는 제목의 캐럴이 있습니다. 이 음악은 13세기 무렵 바스크 지방(피레네 산맥을 끼고 있는 스페인과 프랑스 접경 지역)에서 불리던 오래된 캐럴입니다.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왔네. / 그 날개는 눈처럼
훑날리고,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네. / “만세!” 그가 말하
였네. “미천한 아가씨 마리아, 총애를 받는 여인이여.” 글
로리아 … …』

이 캐럴은 영국 성공회 사제이자 캐럴 수집가였던 사빈 바링 골드(Sabine Baring-Gould)가 영어로 번역하면서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럴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킹스싱어즈(King's Singers)가 노래하는
<가브리엘의 알림(Gabriel's Message)>



2019년 12월 2일, 이탈리아 레코,
성니콜라스대성당(Basilica S.Nicolò)

이 캐럴을 유명하게 만든 또 한 사람은 영국의 뮤지션, 스팅(Sting)입니다. 한때 록밴드 폴리스의 멤버로 활약했던 그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노래하는가 하면, 런던 신포니에타와 스트라빈스키의 <병사의 이야기> 녹음을 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요요 마와 한 무대에 서는 등 클래식한 음악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는 1987년 <A Very Special Christmas(어 베리 스페셜 크리스마스)> 앨범과 2009년 <If On a Winter's Night…(이프 온 어 윈터스 나이트)> 앨범에 이 캐럴을 수록해서 이 곡에 관한 관심을 높였지요.



스팅(Sting)이 노래하는
<가브리엘의 알림(Gabriel's Message)>



눈 내리는 겨울 밤, 장작이 타는 난로 곁에 앉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 탄생을 음악으로 듣는 상상을 해봅시다. 신비롭고도 따뜻한 불빛이 우리 가슴에 켜집니다.

그 희망의 빛은 아기 예수님이겠죠? 어서 오소서, 임마누엘!

응답하라 1978

'응답하라 1978'을 마치며

서울주보가 주는 믿음과 증언의 기억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응답하라 1978〉은 서울주보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서울주보는 서울대학교의 역사일 뿐 아니라 근대의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역사를 엿볼수 있는 창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한 시인은 “울고 있는 슬픈 여인이나 병들어 불행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과 죽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잊힌 여인”이라 노래했습니다. 잊힌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참혹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기록은 기억을 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응답하라 1978〉은 단순히 과거의 교회 역사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지금 다시 현존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주재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기억하라”였습니다. 즉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매 순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동일한 ‘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기억에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가 바로 기억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억에서 누군가가 사라졌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나에게 죽은 존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4년 8월 14일부터 4박 5일의 여정을 마치고 8월 20일 수요일에 있었던 일반 알현 때 한국 방문을 소상하게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한국 방문을 마쳤습니다. 저는 순교자들의



증언 위에 세워졌고 선교의 영에 의해 활기가 넘치는, 젊고 역동적인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아의 오랜 문화와 복음의 끊임없는 새로움이 만나는 곳입니다. (중략) 이번 사도적 방문의 의미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기억, 희망, 증언입니다.”

한국민들은 선조들로부터 전해 받은 힘을 지속해가는 사람들이라며 이러한 배경에서 교회는 기억과 희망의 수호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순교자들의 기억은 현재에서 새로운 증언이 되고 또 미래의 희망이 됩니다.

〈응답하라 1978〉을 통해 얻고자 했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은 인간에게 주신 하느님의 큰 은총입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통해 늘 현재 속에서 새롭게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세상 어디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특히 누군가의 좋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유쾌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응답하라 1978〉이 우리 믿음의 기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존하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도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서울주보가 믿음과 증언에 관한 기억의 창고가 된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느낍니다. 그동안 읽어 주신 독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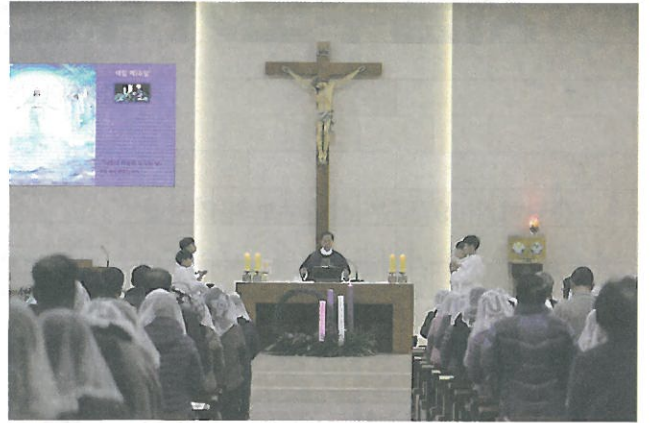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❶ 매일 미사에 보면, 날짜 뒤에 (녹), (홍), (자)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을 구분하는 이유와 색깔별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대림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이어지는 일 년의 전례력은 각 날짜에 모두 특정한 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대림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자)라는 표시로 보라색을 배정합니다. 이 같은 색들은 그날 전례의 특성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각각의 색깔이 고유한 상징과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교회 밖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흰색을 보면서 순수함을 떠올리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 교회는 색채가 가지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의미들을 받아들여서, 제의나 그 밖의 전례 용품에 적용해왔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입고 있는 제의의 색만 봐도, 전례 주년에 따라 진행되는 그리스도교 삶의 의미를 겉으로도 효과 있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45항 참조) 최근에는 전례 용품뿐만 아니라, 성전 내 조명이나 화면 등에도 다채롭게 활용하면서 전례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전례의 의미를 더 깊게 되새길 수 있도록 돕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례에 활용하는 색은 역사를 거치며 점점 늘어 왔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아예 특정한 색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흰색을 필두로 점차 늘어났고, 현재 6개 정도의 색으로 정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색을 언제 사용하는지와 관련하여, 교회의 공식 문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살펴보세요. 또한, 여기에 더하여, 현행 전례 규정은 각 주교회의가 민족 문화와 전통에 맞는 전례 색깔을 결정하여 교황청에서 인준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위령 미사와 장례 예식에 삼베 색과 (가톨릭대사전, 전례복



대림 시기에 사용되는 보라색을 제외와 대림초는 물론, 화면에도 다채롭게 사용하는 모습. 사진 김동성당 제공

항목 참조), 흰색을 추가하여 쓸 수 있게 했고, 특별히 성대하고 기쁜 전례에서는 황금색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어판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46항 부속 설명 참조) 이렇게 제의 색만 보아도 그날 전례의 성격을 알 수 있으니, 그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색과 상징	사용 시기
흰색 영광, 순결, 기쁨을 상징	주님의 부활 시기, 성탄 시기, 그 밖에 수난에 관계된 거행을 제외한 주님의 축제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거룩한 천사들, 순교자 아닌 성인들의 경축일, 모든 성인 대축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빨간색 주님의 열정적 사랑과 피를 상징	주님 수난 성지 주일과 성금요일, 성령 강림 대축일, 주님의 수난 전례, 사도들과 복음사자들의 천상 탄생 축일, 그리고 순교 성인들의 경축일
초록색 생명의 희열과 희망의 색	연중 시기
보라색 참회와 보속을 상징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죽은 이들을 위한 시간 전례와 미사
검은색 죽음을 상징	관습에 따라 써 온 곳에서는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에 사용
분홍색 기쁨 때가 온다는 희망을 상징	관습에 따라 써 온 곳에서 기뻐하여야 주일 (대림 제3주일), 즐거워하여야 주일(사순 제4주일)에 사용

사용 시기는 로마미사경본 총지침 346항 참조

색 상징은 서울주교 2017년 8월 13일 자 '교리산책'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특히 인간은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인간 생명은 신성합니다. 하느님만이 인간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권리를 갖고 계시기에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치료 가능한 중환자의 치료를 포기하거나 죽음을 일부러 앞당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연결된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거나, 간병인에게 일상의 매 순간을 의존해야 하는, '존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중단하여 죽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인간적이지.” “말기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돼.” 이처럼 고통이 심한 말기 환자가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고통을 빨리 끝내고 편안하게 죽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일이며, 최선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중환자와 같이 ‘삶의 질’이 낮은 사람의 생명은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고유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닙니다. 삶의 질로 인간을 평가하려는 모든 시도는 인간을 물건처럼 여기고, ‘존재 가치’를 ‘소유 가치’로 전락시켜 버립니다(생명의 복음 23항 참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7항 참조). 다만 치료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죽음의 과정만 연장하는 무의미하고 과도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앞당기려는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죽음을 수용하는 일이며,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가족과 함께 생의 말기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삶과 죽음, 모두를 주관하시는 사랑과 생명의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지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사랑의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 | 서울대학교 사회사목국 부국장

2021 Christmas fest

명동, 겨울을 밝히다

성탄마켓


수공예 성물, 성탄 공예품


12월 24일(금) 18시~21시



12월 25일(토) 11시~21시

12월 26일(주일) 11시~21시

주최  연세대학교 서울대교구

주관  명동겨울을 밝히다 준비위원회

 연세대학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후원  서울특별시  cpbc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음악 공연

12월 24일(금)

18시30분 서울 브라스 사운드

19시30분 cpbc소년소녀합창단

20시30분 서울 브라스 사운드

12월 25일(토)

12시30분 아코디엠

13시30분 마니포캬어린이 합창단

19시30분 멜랑쉬 오페라단

20시30분 명동성당 청년 합창단

12월 26일(주일)

11시30분 cpbc소년소녀합창단

12시30분 아코디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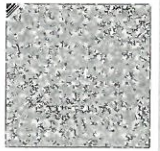
13시30분 멜랑쉬 오페라단

오늘(12월 12일)은 '자선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받는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1984년부터 매년 대림 제3주일을 '자선 주일'로 지내기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불우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자선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3년 12월 17일 이선용 바오로 신부(56세)
- 1994년 12월 14일 구전회 바르톨로메오 신부(73세)



서울주보 홈페이지 cc.catholic.or.kr

교구청일람

서울대교구 청년생활성가밴드 '유빌라테' 단원 모집

모집 분야: 보컬, 드럼
문의: 02)762-5071~2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직장인 금요미사 재개 안내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직장인 금요미사가 재개되었습니다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문화관 2층 소성당(명동)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이단아 비잔틴 이콘전: 1전시실
김옥순 제15회 개인전: 2전시실
전시일정: 12월15일(수)~20일(월)
김지영 도예전: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15일(수)~27일(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讎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298차 미사 12월1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서울대교구 신천 본당, 송화 본당 / 문의: 02)727-2420
유튜브로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 →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2022년도 전기 '인재양성기금' 수혜자 공모

공모부문: 대학원 학비 장학금 지원, 학위논문 작성비 지원, 국내·외 단기연수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홈페이지 참조)
접수기간: 12월31일까지 매일 접수 후 원본 우편 접수(마감당일 우편소인 유효) / 문의: 02)727-2352(www.forlife.or.kr)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및 모임 안내

- 1)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12월18일(토) 매월 세번째(토) 10시30분
곳: 가톨릭회관 4층 413호(명동)
- 2) 자살 유가족 대상별 소모임
대상: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와 이별한 가족
때: 매주(목) 18시30분~20시30분
신청 문의 및 면담: 02)727-2495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2-1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 성사를 받은 교우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교육기간: 2022년 2월9일~7월6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신청기한: 1월28일(금)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1) 2021~2022년 상반기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 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or.kr)
-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가톨릭 조부모 신앙 학교' 안내

손자녀를 둔 조부모들이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부여받은 '신앙의 전수자'라는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자기 자신과 노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나은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가톨릭 조부모 신앙 학교'를 개설합니다
교육대상: 5~7세의 미취학 손자녀를 둔 조부모

교육 시기	2022년 4월~5월(8주 과정)	(월) 오전 10시~12시30분
	2022년 9월~10월(8주 과정)	(화) 오전 10시~12시30분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회비: 10만원(MBTI 검사비 포함)
교육내용: MBTI 검사와 작업, 슬기로운 조부모 생활(손자녀 발달 이해와 공감, 자존감 키우기), 손자녀에게 전해줄 신앙 이야기, 노후 준비(죽음준비, 노후재정과 건강한 노년) / 신청기간: 2022년 2월 모집 예정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isenior.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385 노인사목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의 교정교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때: 2022년 1월 영상 온라인 교육 / 2월~4월 매주(금) 14시~17시 심화 교육(교정사무센터)
회비: 10만원 / 문의: 02)921-5093

2022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정시)

사제지망 일반에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수도자, 만학도로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원서접수: 12월30일(목)~2022년 1월3일(월) 인터넷 접수
교리문답: 2022년 1월10일(월)
입학문의: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

직원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삼성병원 / 1522-9415

음성꽃동네노인요양원(구원외집) 직원 모집

분야: 요양보호사(기숙사 사용 가능) / 수시 모집
문의: 043)879-0225, 0238(www.kkotnoin.or.kr)

가양동성당 사무장 모집 / 문의: 02)2659-3272

분야: 사무장 1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교우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및 PC(한글·엑셀)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2월26일까지 방문·우편(우 07524,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69) 접수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통보)

수유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 문의: 02)999-970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성실한 분
업무: 시설관리, 미화 업무, 운전 가능한 분(1종)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각1부 12월19일(일)까지 우편(우 01043,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165) 및 이메일(suyusamu@hanmail.net) 접수
접수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주소	곳	문의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	0505-1306-1505
성가소비녀회	12월18일(토) 14시	총원	010-2839-4080
천주교 서울 국제 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월18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인준단체 알림

모임

살레시오 수도회 성소상담 / 문의: 010-2042-8353
대상: 고3·일반 35세 이하 미혼 남성 / 심재현 신부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성모 신심 피정(파티마의 세계사도적)

때: 12월13일(월) 오전 10시~낮 12시 / 내용: 강의, 미사
곳: 가톨릭회관 7층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송년 감사 피정 / 문의: 010-9816-0072

대상: 길을 찾는 35세 미만 미혼 여성
때: 12월31일(금)~2022년 1월1일(토) / 회비: 1만원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본원(서울)

효산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 010-9263-7784 글라라
때, 곳: 2022년 1월7일~10일·1월21일~24일·2월25일~28일·3월11일~14일·3월25일~28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로姆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연말연시 피정	12월30일~2022년 1월2일
눈꽃산행 피정	1월8일~10일, 1월21일~23일, 1월28일~30일, 2월6일~9일, 2월12일~14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7차	12월31일(금)~2022년 1월8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98차	1월28일(금)~2월5일(토)	
제99차	2월18일(금)~26일(토)	

교육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블로그: blog.naver.com/px21s / 010-5313-6554(문자)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새천년복음화학교 146기 1단계 개강

때: 2022년 1월25일(화) 오후 2시 / 회비: 7만원
수강문의: 02)753-8765, 02)2096-0410-0411

성음악 클래식기타 주법 교육

성음악 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교육
때: 매주(금) 14시~16시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입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기간: 단기 1년 또는 장기 / 백신 접종 가능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성령선교수녀회 '선교사와 영어기도'

때: 2022년 1월7일부터 매주(금) 20시~21시(1월, 4회)
곳: Zoom 온라인 / 회비: 5천원
인원: 6명 / 문의: 010-8538-4895 필립바 수녀

바로로딸 성경학교 학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 2022년 1월31일까지 접수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선교아카데미 제11기 교육생 모집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 회비: 80만원(식대 포함)
때, 곳: 2022년 3월3일~9월29일 매주(목), 한국외방선교회 본부(성북동) / 문의: 02)3673-2528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메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 회비: 7만원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때: 2022년 1월11일부터 매주(화) 10시30분~19시40분(6주)
곳: 한국CLC 강의실(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1월6일까지 접수 / 문의(접수): 02)333-9898 한국CLC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이콘 교실(입문반)

강사: 오승민 수사(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김경미
때: 2021년 1월4일(화)~7일(금) 개강(12회 진행)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인원: 각 반별 0명
회비: 38만원(교재, 이콘판, 개인붓 별도)

(화) 저녁반 18시30분~21시30분	문의(접수): 02)6364-2204
(수) 오전반 10시~13시	
(목) 오전반 10시~13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사무실
오후반 14시~17시	
(금) 오전반 10시~13시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2022년 1월 개강)

안전한 강의 환경을 위해 현장 수강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6주 과정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의식(양심) 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매주(목) 동영상 링크 발송	권오연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최고의 지혜, 하느님의 지혜-집안-집회서	현장 강의: 매주(화) 19시30분~21시	주원준 박사
	동영상 녹화강의: 링크 발송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선교사(교리교사) 자격 수여
접수: 2022년 1월18일(화)까지 / ci.catholic.ac.kr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교리교육 학과	주 5일 주간(2년)	세계 3년 넘는 전전자 입회 2년 넘는 수도자
종교교육 학과	주 4일 야간(2년)	타 대학에 적이 없고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신학심화 과정	주 3일 주간(1년)	본원 교리·종교학과 준한 과정 이수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모집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정기단원 모집
오디션: 2022년 1월14일(금), 국악성가연구소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자유곡 1곡
연습: 매주(금) 19시~21시30분 / 지도: 강수근 신부
문의: 010-3733-6526, 010-9132-1318

주교좌 명동대성당 미사해설단 신규봉사자 모집

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37세 미만 남녀 교우(단,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자로 서울대교구에 거주하는 자)
(토) 16시 회합 참석 및 평일 18시 미사봉사 가능한 자에 한함(교적증명서 제출 필수) / 문의: 010-9252-1923 단장
12월26일까지 접수 / 오디션: 추후 공지 예정

미사

들꽃마을을 서울 영성강의 및 미사 취소 안내
때: 12월14일(화) / 문의: 054)955-4133, 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내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뵤자비의수녀회)

노인 공동생활가정

시설명: 바로로 성모의 집(유료)
대상: 일상생활 가능하신 여성
곳: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98
운영기관: 샬트르성바로수녀회
문의: 010-9428-2247, 02)381-7510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번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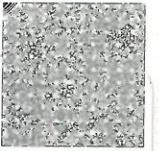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사목상담	성격, 관계, 정서(불안·우울·단절감) 등 심리적 고통에 관한 상담사목 / 대상: 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무료 10회기)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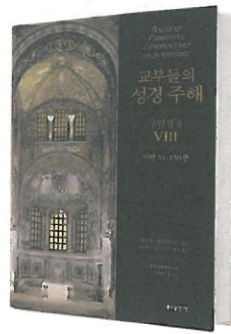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진로, 영성상담, 진로검사, 화상(Zoom) 상담 가능 / 소장: 이찬 신부
문의: 010-9295-5912(www.dstcoun.net)



신간
판단 전에 잠깐!

살보 노에 지음
바오로말 | 304쪽 | 1만7천원
문의: 02)944-0944

『불평 멈추기의 저자가 비판과 갈등의 불씨가 되는 선입견과 부정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판단에 대해 쓴 책이다. 저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남을 판단하고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파괴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하는지에 대해 심리 이론과 여러 예화를 소개한다.



신간
**교부들의 성경주해
구약성경 8 시편 51-150편**

켄틴 F. 베셀슈미트 지음
분도출판사 | 680쪽 | 6만원
문의: 02)2266-3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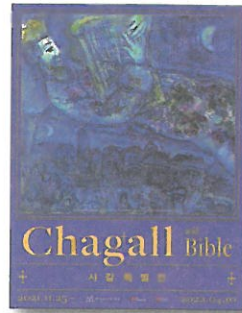
『교부들의 성경 주해』는 신·구약 성경 전권에 대한 교부들의 사상과 신앙을 그 정수^{精粹}만 뽑아 현대어로 옮겨 엮은 29권의 방대한 총서다. 이 총서는 현대 독자들이 고대 그리스도교 시대에 활동한 교부들의 핵심 사상에 스스로 다가갈 기회를 제공한다.



신간
**치빌타 카톨리카
제14권**

안토니오 스파다로 외 지음
도서출판 이나시오영성연구소 | 340쪽
1만원 | 문의: 02)3276-7799

1850년부터 예수회가 교황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격주 발행해 온 정기 간행물이다. 이번 14권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들 중에서 팬데믹과 교회, 교종 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20개의 기사를 선별해 묶었다.



전시
**사갈 특별전
'Chagall and Bible'**

전시기간-장소: 11월25일~2022년 4월10일,
마이아트뮤지엄 / 문의: 02)536-8841
입장료: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2천원, 어린이 1만원(만 36개월 미만 무료)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2명 3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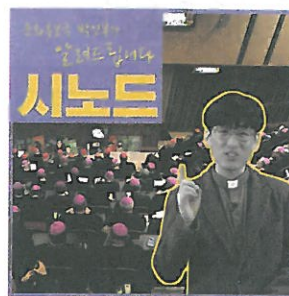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1위인 성경 속 이야기를 위대한 이야기꾼 사갈의 상상력과 사랑의 색으로 전한다. 삶의 희로애락과 인류의 사랑을 담아낸 성경의 메시지 속에서 사갈의 진정한 예술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전시로 독일 피카소 미술관 및 사갈 유족의 소장품 등 220여 점의 원화가 소개된다.



공연
**2021 종로아이들극장 송년 기획공연
구두쇠 스크루지
- 크리스마스 캐럴**

공연시간: 홈페이지(https://ct.jfac.or.kr) 참조
입장료: 전석 3만원 / 문의: 02)2088-4290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4명 20% 할인 (인터파크 티켓 예매처에서 '서울주보' 할인권종 선택하여 예매 후, 현장에서 티켓 수령 시 서울주보(공연계시면) 자참바랍니다.)

가족 음악극 <구두쇠 스크루지-크리스마스캐럴>이 12월 16일(목)~26일(일)까지 종로 아이들극장에서 공연된다.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가 브날 자신에게 일어난 특별한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처럼,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행복의 의미를 전해주고자 한다.



유튜브
**가톨릭튜브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가톨릭튜브>
▶ 가톨릭튜브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유튜브 채널인 <가톨릭튜브> '알려드립니다'에서는 가톨릭교회의 행사 소식, 시설 정보, 교회 제도 등 다양한 교회 소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첫 번째 소식으로 <시노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제22067(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차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2022년도 달력 배부

장소 : 매 미사 후 교육관 1층 로비에서 배부
 방법 : 세대별 1부씩 / 구역, 반, 이름 기입 후 수령
 (주일에 수령 못하신 분들은 성당사무실에서 구역, 반, 이름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2구역, 4구역, 8구역, 9구역은 반장님께서 달력을 배부해드립니다.

◎ 성탄 집중 판공성사

일시 : 12월 16일(목) 저녁 7시30분
 장소 : 성전 및 임시 교회실
 * 올해 집중판공성사 때는 바코드카드와 성사표를 함께 사용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바코드카드와 성사표를 함께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른날 미사 전 성사를 보실 때는 성사표만 있어도 됩니다.)
 * 성사표는 각 구역반장님을 통해 배부합니다. 연남기타구역·기타구역은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대림 기간 중 매 미사 전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청년 대림특강

1. 12월 12일(주일) 오후 7시
 주제 :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기도'
 강사 : 최지원 마리네오스 수녀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 영성심리 박사)
 장소 : 대성전
 2. 12월 19일(주일) 오후 7시
 주제 : '기다림'을 주제로 한 음악피정
 강사 : 보좌신부 with 이레밴드
 장소 : 소성전
 ※ 청년 외 신자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 12월 18일(토) 초등부주일학교 미사는 초등부성탄제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일시	미사 시간
성탄 미사	12/24(금)	오전 6시, 오전 10시 (평일미사) 오후 8시 (성탄 밤 미사) -소성전, 지하식당은 스크린으로 미사드릴 수 있습니다.
	12/25(토)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3시 (초등부/성가정축일 미사) 오후 6시 (성가정축일 미사)

◎ 주일학교 성탄제

초등부	12월 18일(토) 15시 ~ 17시 지하식당
중고등부·반대	12월 26일(주일) 13시 ~ 17시 지하식당

◎ 청년단체 이레밴드 단원 모집

모집파트 : 보컬, 피아노, 베이스, 드럼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3시
 미사봉헌 : 매월 마지막주 주일 오후 6시
 문의 : 단장 박군영 사도요한 (010-2829-3856)

◎ 오늘은 자선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 갱신 안내

- 지난 2016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5년이 경과되어 금년(2021년)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본당에 교적이 있는 가족의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받으실 분들은, 올해 안으로 책정자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 나눔 운동 마감

2021년 4월부터 11월 27일까지 총 10분에서 11,630,000원을 성금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12. 5)

총세대	책정 세대	미 책정 세대	2020년 책정율	2020년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110	869	1,241	45.2%	42.0%	41.2	39.9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1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리모델링 기금 (11월 29일~12월 5일)

오기향 일백만원 이지만 오십만원
 누 계 931,824,761원

◎ 감사헌금 (11월 29일~12월 5일)

이경구 일십만원 이정민 일십만원
 김재관 삼십만원 기광서 일백만원
 박수연 삼만원 김희수 일만원
 익 명 이십만원 김재균 오만원
 정수진 칠만원 익 명 삼만원
 한인경 이십만원 익 명 일백만원
 이창수 일십만원 서복덕 이만사천원
 이지만 오십만원 박명숙 사만원
 이현수 일십만원 김진애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대림 제2주일)

교무금 20,329,000원
 주일헌금 3,822,300원
 리모델링 2차헌금 1,887,000원